

2014학년도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역사

수험 번호 : () 성 명 : ()

1차 시험	3 교시 전공B	4문항 3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1~2]

1. 밑줄 친 ㉠ 사건의 명칭과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정책을 쓰고, ㉠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실행한 ㉡의 정치적 목적을 3가지만 쓰시오. [5점]

(가) 지금 황위를 계승한 어린 군주가 간사한 자를 신임하고 멋대로 큰 화를 일으켜 우리 집안을 도륙하고 있다. … (중략) … 祖訓에 “조정에 바른 신하가 없고 안으로 간악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군사를 훈련시켜 그를 토벌하고 군주 옆의 악을 제거하라.”고 하였다. 지금 禍가 내 몸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살 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의로운 자와 간사한 자는 한 하늘 아래 더불어 살 수 없으니 ㉠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악인을 토벌하고 社稷을 편안하게 하겠다.

- 『國朝典故』

(나) 천하에 강남 지역이 있다는 것은 마치 부잣집에 창고와 장롱이 있는 것과 같다. 예컨대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라면 창고와 장롱은 반드시 몸소 지키고 그 문과 뜰은 하인들에게 맡길 것이다. 南京을 버리고 수도로 삼지 않은 것은 하인에게 창고나 장롱을 맡기는 것이고, (㉡)은/는 몸소 문이나 뜰을 지키는 것이다. 천하를 다스리는 지혜가 돈 많은 부잣집 아들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 『明夷待訪錄』

2. (가)의 밑줄 친 ‘수도원’의 이름을 쓰고, 이 수도원이 11세기의 교회 개혁에 미친 영향을 2가지만 쓰시오. 그리고 (나)의 반응을 초래한 교황 교서의 핵심 내용을 쓰시오. [5점]

(가) 기욤 아키텐 공작은 자신의 영지에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한 후 자신을 위한 미사와 기도 외에 그 어떤 요구와 간섭도 하지 않았다. 수도사들은 스스로 수도원 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며 경영하였다. 그들은 성 베네딕투스 계율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엄숙한 공동생활을 지향하였으며, 스스로 수도원장을 선출하였다. 수도원장은 유럽 각지에 설립된 많은 분원을 감독하였다.

(나) 그대는 신이 부여한 황제권을 탈취하려는 만용을 부렸다. 나아가 그대는 마치 우리가 그대에게서 황제권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황제권이 신의 뜻이 아니라 그대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감히 호도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대가 아니라 나에게 영적 지배권을 부여 하셨다. … (중략) … 그대는 내게 제위를 허락한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나 하인리히는 모든 주교와 함께 그대에게 엄숙히 명한다. 퇴위하라!

2. (가)와 (나) 시기에 실시한 권농책의 경제적 배경과 내용을 각각 쓰시오. 그리고 (다)와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농업 기술의 발전을 쓰고, 이러한 양상을 타개하기 위한 실학자의 토지개혁론을 1가지만 쓰시오. [10점]

(가)	<p>○ 3월에 영을 내려 순장을 금하였다. …(중략)… 각 주의 郡主에게 명하여 농사를 권장케 하였다. - 『三國史記』 新羅本紀</p> <p>○ 3월에서 5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하천과 못이 마르고 백성들이 굶주리자 창고를 열어 구제하였다. …(중략)… 봄 정월에 명령을 내려 …… 중앙과 지방에서 놀고먹는 자들을 몰아 농사짓게 하였다. - 『三國史記』 百濟本紀</p>
(나)	<p>○ 荒地는 7~8월간에 갈아엎어 잡초를 묻어 죽이고 이듬해 얼음이 풀릴 무렵 또 다시 갈고 씨앗을 파종한다. 대개 荒地의 개간은 애벌갈이는 깊이 가는 게 좋고 두 번 갈이는 얇게 가는 것이 좋다(처음에는 깊이 간 뒤 나중에 얇게 갈면 생땀이 일어나지 않고 흙을 軟熟하게 할 수 있다). - 『農事直說』</p>
(다)	<p>○ 신[朴文秀]이 湖西에 오랫동안 있었으므로 민폐를 익히 알고 있어 감히 이를 仰達합니다. 농민의 일을 말씀드리면 전답은 모두 土夫·鄉族·富戶에게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경작하는 땅은 竝作 아닌 것이 없고 많이 얻는 자라야 10두락의 논에 불과합니다. 하루의 役事에는 반드시 10인이 있어야 하고, 김을 매는 한 사람의 貰糧은 쌀 3되요, 품삯은 돈 5푼이며 세 차례 김을 매야 하고 한 차례 수확하고 한 차례 타작해야 하므로 이에 들어가는 인부는 50인 가까이 되니 마침내 소득이란 것은 20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0석은 本主에게 돌아가고 10석만이 그들의 소유물인데, 경작할 때 대여 받은 것은 모두가 土豪나 富民에게 빚을 낸 것입니다. - 『備邊司謄錄』 英祖 3年 10月 22日</p> <p>○ 요즈음 小民들이 농사에 게으르고 이익을 탐하여 廣作을 하고 이것이 매년 증가하니 지금은 여러 도에 두루 퍼져 있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 『備邊司謄錄』 英祖 36年 6月 19日</p>

<수고하셨습니다.>